

제254회 연제구의회

# 본 회의 회의록 제1차(부록)

연제구의회사무국

---

## 목 차

1. 의사일정 변경(추가) 동의를 건(소수견 의원 외 4인 서면 동의) ..... 3 면



## 의사일정 변경(추가) 동의의 건 ( 대표제의: 소수련 의원 )

|      |     |
|------|-----|
| 의안번호 | 403 |
|------|-----|

제의일자: 2024. 9. 3.

제의의원: 소수련, 정홍숙, 변준호, 이의찬,  
권성하

### 1. 제안이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및 부산연제구 선제적 지원 결의안(붙임 참조)” 을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4. 9. 4.)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함.

### 2. 주요내용

- 가. 회복의 시급성과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함.
- 나. 이에 본 안건의 시급성 등을 고려 이번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 추가를 제안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의 사 일 정

제25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9. 4.(수) 11:00

1. 제25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및 부산연제구 선제적  
지원 결의안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및 부산연제구 선제적 지원 결의안

최근 정부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로, 특히 부산연제구를 포함한 지방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2,200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소비위축이 심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여기에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라는 4중고가 겹쳐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 위기 이후 회복세가 더디며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서민들 사이에서는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재정의 어려움과 세수 부족,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기대했던 경제적 지원이 좌절되었고, 부산연제구를 포함한 지역사회는 여전히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국가 재정의 부담과 물가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으나, 지원금 지급이 가져올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는 그러한 우려를 충분히 상쇄할 것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를 진작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 연제구는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

이에 부산연제구의회는 구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생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라.

하나.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하라.

하나. 부산연제구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구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를 촉구한다.

2024. 9.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